

미국과 EU에 이어 지난해는 축산강국인 영연방 3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축산은 지구상의 모든 축산강국과의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됐다.

이미 그 이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칠레 산 돈육은 수입관세가 철폐됐고 이제 곧 미국과 EU산 축산물의 수입관세도 약정된 스케줄에 따라 수입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수입관세라는 국내 축산업 보호장벽마저 제거된 국내 축산물 시장에서 한국 축산업 생존의 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경쟁력 강화 밖에는 없다.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FTA는 국내 관련업계의 위협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FTA 체결로 열릴 중국시장은 한국 축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제품과 원가경쟁력이다. 시장 접근성과 FTA 체결 등 유리한 조건도 많지만 조사료까지 수입 급여하는 한 중국시장에서 한국 축산 제품의 원가경쟁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축산물과 축산업에 대한 국내 인식의 악화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각종 마스크의 건강 프로그램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건강을 위해서는 축산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거짓 정보가 반복되면 대중은 이를 진실로 접수하게 됨은 마스크의 매력이며 이러한 마스크의 작태가 아무런 규제 없이 지속된다면 평범한 소비자의 기억 속에는 축산물은 기피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내에 신규 축산 사업장 설립을 환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다.

이전에는 소중한 유기질 비료자원이었던 가축 분뇨는 골칫거리인 산업 폐기물로 전락했고 이에 수반되는 악취와 파리 문제는 축산업을 기피산업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축산업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 축산업은

##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국축산



구 본 현(주)신한바이오텍 회장

기피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잠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관목들만 가득 찬 많은 아산이 있다. 규제 일변도로 제정된 초지법을 초지개발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초지 조성 전문기관인 가칭 초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잠자고 있는 이 임야를 훌륭한 초지로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다면 우리는 한국축산의 르네상스시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축산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 국산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조성 운용되고 있는 축종 별 자조금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인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운용돼야 한다. 미국에서 쇠고기의 건강에 유해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연구비 지원을 받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던 쇠고기에서 암을 예방하는 CLA가 함유되어 있음을 연구 발표함으로써 미국 비육업계는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최윤재 서울대 교수 등이 시작한 '축산물 바로알리기' 운동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이해를 높이는 훌륭한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한국축산 중흥의 사명 의식으로 가득 찼던 축산업계 원로들이 한층 더 그리워짐은 무슨 연유일까? **편우**